

The Hope of Jacob's Exodus (창세기 50:1-14)

The Underlying Truth of a Dying Wish

Last week, after blessing his remaining sons with a focus on the fruitfulness of Joseph, Jacob 'breathed his last.' That was around 1800 BC. 1500 years later witnessed the death of another prominent man & their two deaths provide a contrast that illustrates the key point of this passage. Alexander the Great was the king of the ancient Gk kingdom of Macedon. Before He died in 323 B.C. @ age 32 he mentioned his three dying wishes. "My first desire is that my physicians alone must carry my coffin." "Secondly, I desire that when my coffin is being carried to the grave, the path leading to the graveyard be strewn with gold, silver and precious stones that I have collected in my treasury." "My third & last wish is that both my hands be kept dangling out of my coffin."

'At the age of 32, this man had conquered the world and had unimaginable prestige and wealth as the most powerful emperor of the ancient world. Yet, when he died, his wishes reflected the realisation of a life filled with victories and empty in eternal significance: Doctors could not save him; his riches could only follow him as far as his grave; and lastly, he was leaving this world the same way he entered it: empty-handed.'

So recorded one Christian author who also went onto say, "It seems as if Alexander's dying remarks are the typical realisation of most people on their death bed. One never hears of a dying man or woman wishing that they had accumulated more wealth... or found more prestige. You won't hear a dying person wishing they had added another degree to their resume or that they had lived in a bigger house. Their regrets have nothing to do with their possessions. Dying regrets have to do with the things neglected while pursuing the biggest and greatest."

죽어가는 소원의 근본적인 진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요셉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약 1800BC 경에 일입니다. 1500년이 지나, 우리는 역사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대조를 이루는 이 두 인물의 죽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는 요점을 나타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인물은 고대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323BC 에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32 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3 가지 유언을 말했습니다. "내 첫 번째 소원은 나를 돌본 의사들만이 내 관을 나를 것이며, 내 두 번째 소원은 내 관을 무덤으로 옮길 때, 그 길에는 내 금고에 있는 모든 금, 은, 보석들을 깔아 놓을 것이며, 내 세 번째 소원은 관 밖으로 내 두 손이 나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32 세의 나이에 세계를 정복하고 고대 세계의 가장 강력한 황제로서 상상할 수 없는 위신과 부를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즈음에는, 그가 거둔 모든 승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의사들이 관을 나르게 함은, 의사들조차도 그를 살릴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길가의 보석을 깔아 놓음은, 그 모든 보석은 이 생에서만 유효할 뿐이며, 손을 관 밖으로 내놓음은, 결국 이 세상을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런 알렉산더 왕의 임종 발언은,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깨달음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축적했거나 더 많은 명성을 얻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당신은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부터, 이력서에 학위 하나를 더 하나 더 추가했거나, 더 큰 집에서 살았으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들의 후회는 그들의 소유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죽어가는 자들의 후회는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면서 소홀히 한 것들과 관련이 있다."

Death bed desires have one thing in common...they reveal the reality of the source of hope... If ones hopes in this world.... hope ends with death...If we hope in the Lord Hope shines brightly in life & even in the face of death.

Where is my hope? Restrictions eased....end of Covid....freedom?

In our last church — I was privileged to see the sure hope of the Lord in the decline & death of one of our members from cancer. Just when it seemed he might die, God gave him extra time to express his desires to those he particularly loved that they would come to trust Jesus as Lord & Saviour.

In the passage before us...we see that Jacob's dying wish showed his bare trust in the promise God had first given his grandfather Abraham to give him a PL...repeated to his father Isaac & then to him as the 3rd generation recipient of God's grace.

Bound up in the PL was God's people under God's rule — in other words...God's good news of His coming kingdom that would take its name from this patriarch who at the end of chapter 49 we're told had breathed his last...we continue

Egyptian Grace to Enable Godly Hope (1-9)

v1, 'Then Joseph fell on his father's face and wept over him and kissed him.'

It's not the oldest son, Reuben nor either of the next two in Simeon or Levi who take the lead in the expression of emotional grief...but the leader of the land & now in the wake of Jacob's death, a leader in the family.

임종 가운데 있는 자들의 욕망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들이 소망하던 것의 근원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둔다면, 이런 세상 소망은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둔다면, 이 소망은 삶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밝게 빛납니다.

내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코로나가 끝나고, 락다운으로부터 자유함이 우리의 소망인가요? 제가 전에 있던 이전 교회에서, 한 성도분이 암으로 말미암아 점점 쇠퇴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 가운데 확고한 주님의 소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곧 죽을 것만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조금의 시간을 더 허락해 주셔서, 그가 말할 수 있게 하사,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어가는 야곱의 소원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약속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반복되었고, 이제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르어, 3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소망을 가능케 하는 애굽의 은혜 (1~9)

1 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맞추고”

장자인 르우벤이나 둘째인 시므온 혹은 레위가 대표하여 감정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지도자였으며, 가족의 지도자인 요셉이 그 슬픔을 나타냅니다.

We've already seen Joseph overcome with emotion at the confronting scene with his brothers back in chapter 45...& then again in chapter 46 where he fell on Jacob's neck & wept for a prolonged period...now over Jacob's dead body he weeps & kisses him again.

Straight away we read in v2 that '... Joseph commanded his servants the physicians to embalm his father. So the physicians embalmed Israel. Forty days were required for it, for that is how many are required for embalming. And the Egyptians wept for him for seventy days.'

For Joseph, there was none of the Egyptian spirituality behind his decision to embalm his father's body...it was his wisdom in drawing on the necessary method of embalming to preserve his father's body for the time of mourning for such a great man...to gain permission from Pharaoh...& make preparations for the long trip to the future PL [MAP]

It was an Egyptian ritual for the first Israelite...who at least by name...was the father of the nation (though Abraham tended to be foremost in the mind of the coming generations of Israelites when they thought of the most prominent Patriarch). The fact that we're told the Egyptians wept for Israel for 70 days shows a deep respect for someone to whom they had looked as a great man...with 72 days being the time of mourning for the death of a Pharaoh.

During that time, Joseph was busy planning the next stage in order to fulfil his father's dying oath....to bring it to action from V4, '(And) when the days of weeping for him were past, Joseph spoke to the household of Pharaoh, saying, "If now I have found favour in your eyes, please speak in the ears of Pharaoh, saying, 'My father made me swear, saying, "I am about to die: in my tomb that I hewed out for myself in the land of Canaan, there shall you bury me." Now therefore, let me please go up and bury my father. Then I will return.'"

우리가 45 장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감정이 북받친 모습을 보았고, 46 장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목을 어긋맞춰 안고 오래 동안 울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 죽음 앞에서, 요셉은 다시 울며 그에게 입맞춥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구절인 2~3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사십 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칠십 일을 곡하였다." (새번역)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에 시신을 방부처리 함에는, 애굽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함에는, 지혜 가운데, 애도하는 기간 동안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약속에 땅까지 돌아가는 긴 시간 동안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이렇게 방부처리한 것입니다. <지도>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 최초로서 애굽의 이런 의식을 받으며 장사하게 됩니다. 당시 바로 왕이 죽었을 때 72 일 동안 애굽인들이 애통한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야곱을 위해 70 일을 애통했다는 사실은, 야곱을 위대한 인물로 인식하며, 그를 향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아버지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4~5 절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 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새번역)

Two of the great character traits in Joseph that are particularly on view here were his wise discretion & his notable humility. He showed the Pharaoh great respect & was never presumptuous as if, because of all the merits he'd accrued in saving and prospering Egypt, he deserved to be on first name basis. So, he spoke to Pharaoh's household...with the humble request, not 'since I have found favour...but 'if'... of course he'd found favour ... but in his humility he didn't presume. Joseph again is an encouragement to us all to strive for Christlike humility to all in our lives.

May the Lord be pleased to help each of us in Christ, follow Joseph's lead who points us to our Lord Jesus — who being the greatest of all — in his own humility was never presumptuous in the way he interacted with His frail followers.

Joseph by his godly character had endeared himself to Pharaoh... So Pharaoh we see after his household's mediation would proceed to give him far more than that for which he could have hoped...v6, 'And Pharaoh answered, "Go up, and bury your father, as he made you swear." So Joseph went up to bury his father. With him went up all the servants of Pharaoh, the elders of his household, and all the elders of the land of Egypt, as well as all the household of Joseph, his brothers, and his father's household. Only their children, their flocks, and their herds were left in the land of Goshen. And there went up with him both chariots and horsemen. It was a very great company.'

With the charioteers & horseman in the procession Joseph & his household as well as Pharaoh's household the Lord through Pharaoh was showering the procession with grace. As they made that long journey...they enjoyed the most secure protection possible for a travelling band in the ANE & behind Pharaoh's favour was God's great intent to see Israel's oath enacted — God's promises honoured & the unfolding salvation history of God being fulfilled...

여기서 볼 수 있는 요셉의 훌륭한 성품 두 가지는, 그의 현명한 신중함과, 겸손함입니다. 그는 바로에게 큰 존경심을 나타내며,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구했다고 해서 결코 거만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궁에서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이라 말할 때 이런 요셉의 말투를 통해 그의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분으로, 그 겸손하심 가운데, 연약한 우리와 교류하신 분입니다.

요셉의 경건한 성품 때문에 요셉을 매우 귀히 여겼던 바로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대 이상의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9 절 “그러자 바로는 '네가 맹세한 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려고 올라갔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궁중 자문 위원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 관리들도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과 그의 형제들과 모든 친척들도 함께 올라가고 고센 땅에는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았다. 이와 같이 전차와 마병들까지 동원된 장사 행렬은 장사진을 이루었다.” (현대인의 성경)

전차와 마병과 요셉과 바로의 사람들로 장사 행렬은 큰 장사진을 이루었고, 주님께서 바로를 통해 그 과정을 은혜로 부으신 것입니다. 그 긴 여정 가운데, 이런 바로의 호의로 요셉은 안전하게 장사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런 바로의 호의는 이스라엘의 맹세가 시행되는 것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We're reminded of the original promise God gave to grandfather Abraham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We're also reminded of the coming exodus 3 generations from Joseph...for here the Israelites in this funeral procession — for an unknown reason, apart from the sovereign connection we're meant to make with it — took the long route around the bottom of the Dead Sea & up the eastern side of the Jordan — the same roundabout way that they would take to get to the PL under Moses. Israel's bodily exodus from Egypt became the foreshadowing of the much greater exodus to galvanise Israel as a nation under God.

At the very least, we are meant to marvel at the awesome way our Lord is working out His plans down to the smallest detail to weave them all together to make for His great glory in salvation. We can & should have every reason to keep growing in our trust in the Lord to see Him use all manner of circumstance to achieve His will in the world & our lives according to His purposes.

Grief to Honour Godly Hope (10-11)

v10, 'When they came to the threshing floor of Atad, which is beyond the Jordan, they lamented there with a very great and grievous lamentation, and he made a mourning for his father seven days. When the inhabitants of the land, the Canaanites, saw the mourning on the threshing floor of Atad, they said, "This is a grievous mourning by the Egyptians." Therefore the place was named Abel-mizraim; it is beyond the Jordan.'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떠오르게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3)

그리고 이런 장례 여정은, 요셉으로부터 3 세대가 지나 이뤄질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택한 여정을 살펴보면, 사해 아래 지역을 지나, 요르단 강 동쪽을 도는 긴 길을 선택했고, 이는 모세의 인도 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출애굽 하여 걸은 여정과 같은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죽고 난 뒤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장사되는 과정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는 훨씬 더 큰 출애굽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계획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실행하여 구원 안에서 그의 큰 영광을 이루기 위해 그것들을 엮으시는 놀라운 섭리에 경탄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그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키워 나가야 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경건한 소망을 기리기 위한 슬픔 (10~11 절)

10~11 절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오랫동안 큰 소리로 울었으며 요셉은 거기서 관습대로 7 일 동안 울며 슬퍼하였다.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 타작 마당에서 들려오는 울음 소리를 듣고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애통하는 소리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하였다.”

The name 'abel-mizraim' literally means 'mourning of Egypt'...

It's a phrase that reminds us of the coming exodus...where in relation to that later time ~ 400 years when the Israelites would leave Egypt... Exodus 12:30 records there was a great cry in Egypt...over the death of the firstborn sons on the night of the Passover...at that time hopeless grief

A Vow Fulfilled for Godly Hope (12-14)

v12, 'Thus his sons did for him as he had commanded them, for his sons carried him to the land of Canaan and buried him in the cave of the field at Machpelah, to the east of Mamre, which Abraham bought with the field from Ephron the Hittite to possess as a burying place. After he had buried his father, Joseph returned to Egypt with his brothers & all who had gone up with him to bury his father.'

The land of Goshen had been on loan for them to use freely...but it was Egypt's land...even the majority of Canaan at this stage of Israel's history remained Canaanite territory...except for the field & Cave of Machpelah that Abraham purchased from Ephron the Hittite to bury his wife Sarah — Gen. 23 where she died at 127.

On his deathbed, Jacob reminded Joseph that Abraham & Sarah...Isaac & Rebekah as well as his own wife Leah were buried there.

It was to remind the 12 sons of Israel — the 1st generation of Israelites — that like a seed buried before the plant springs up...the burial of these great ones...represented their coming roots before the new life of Israel in what would become God's OT PL.

아벨-미스라임 이라는 이름은 “이집트의 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다시 한번 장차 있을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야곱을 장사하고 400 년이 지난 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기 12:30 절은 기록하기를, 애굽 전역에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첫아들이 죽어 초상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며, 당시에 이는 소망 없는 슬픔을 나타냅니다.

경건한 소망을 위해 성취된 맹세 (12~14 절)

12~14 절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는데 이 곳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 그 밭과 함께 산 매장지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매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장례식에 그를 따라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여전히 애굽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 배경에서 보면 대부분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땅이었습니다...그러나 마므레 앞 막벨라 밭과 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으로부터 산 땅으로,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산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23 장에서 보듯이 그녀는 127 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임종 가운데 요셉에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가 그곳에 묻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에게 상기시키기를, 이스라엘의 첫 세대들은, 싹이 나기 전에 심어지는 씨앗과 같이 땅에 묻힌 자들이며, 이는 구약 약속의 땅 가운데 새 생명이 나오기 전에 오는 뿌리를 나타냅니다.

But there was a time of further sojourning in Egypt...for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in Genesis 15:16 that 'they shall come back here in the fourth generation, for the iniquity of the Amorites is not yet complete.' In other words, at the time of the fourth generation of Israelites who were the great-grandchildren of the twelve sons...the wickedness of the people of Canaan aka the Amorites would reach it's completion for God's judgement & His promise of the land to be fulfilled.

All such God-revealed events were what gave Jacob hope to inspire his deathbed request & Joseph's oath. Goshen wasn't Israel's home ... because His home prefigured in Canaan was a sign of the exodus he had just made in dying. He was among the four — namely Abraham/Sarah & his father Isaac that Hebrews 11:13, 14 & 16 says who 'died in faith, not having received the things promised, but having seen them and greeted them from afar, an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y were strangers and exiles on the earth. For people who speak thus make it clear that they are seeking a homeland...as it is they desire a better country, that is a heavenly one. Therefore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for He has prepared for them a city.'

The Hope of God in our 'Exodus'

It would happen just as the Lord had predicted — in that fourth generation under Moses...where the Lord would guide the nation of Israel in their exodus from Egypt to the edge of the PL.

The Lord by the merits of the sacrifice of Christ our Passover Lamb (1 C 5:7) has blazed the way to secure our own exodus from the slavery of sin, its coming judgement & everything in b/w that marks the brokenness of our world. It brings us back to the bare reality of our real hope in life & death ... may it be the gospel of our salvation that more than anything we would want for those we leave behind...to impress upon them that there is no hope but that they know Christ & the hope that we have in life, in death & beyond it to eternal life.

Her 9:23-24 'Thus says the LORD: "Let not the wise man boast in his wisdom, let not the mighty man boast in his might, let not the rich man boast in his riches, but let him who boasts boast in this, that he understands and knows me, that I am the LORD who practices steadfast love,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the earth. For in these things I delight, declares the LORD."

하지만 창세기 15:16 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기에, 그가 이집트에 더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증손자들, 즉 4 세대가 되었을 즈음,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의 악이 가득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였던 것이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출애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소망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살이와, 심판과, 죄악 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할 수 있는 길을 밝히 비추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죽음 가운데 어디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이 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구원의 복음만을 남겨두고 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과 우리가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 영생에 이르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9:23~24 *“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